

“축의금 도둑 조심하세요”

쌍춘년 결혼시즌…절도 기승

순천경찰 전문절도단 불잡아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혼잡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노리는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순천경찰은 4일 결혼식장을 돌며 축의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전모(65·부산시 서구)씨 등 3명을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순천시 석현동 모 예식장에서 축의금 1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순천과 여수지역 예식장 4곳에서 400여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축의금 접

수대가 혼잡한 틈을 타 축의금을 받는 혼주족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봉투를 받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결혼식장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입찰이 두 번 겹친 ‘쌍춘년(雙春年)’인 올해 결혼식이 많아 축의금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혼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축의금을 노리는 전문 조직이 추가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흔주는 축의금을 하객들은 각자 소지한 지갑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인구 30만 명 붕괴가 현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찰이 두 번 겹친 ‘쌍춘년(雙春年)’인 올해 결혼식이 많아 축의금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혼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축의금을 노리는 전문 조직이 추가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흔주는 축의금을 하객들은 각자 소지한 지갑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인구 30만 명 붕괴가 현실로

드러났다.

연평균 3,500여명 감소…3월말 현재 299,841명

국회의원 1명 줄고 기구 감축·예산 감소 불가피

전남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여수시의 인구가 지난달 말로 30만이 붕괴됐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시 인구는 29만9천841명으로 전달의 30만255명보다 414명이나 줄어들었다.

여수시는 1993년 33만3천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998년 ‘3려 통합’ 이후에는 그 감소폭이 커져 매년 평균 3천500여 명씩 감소해 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다기술에 따라 여수는 현재 2명인 국회 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게 됐고 인구 수감소에 따른 기구 감축, 예산 지원 감소 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수 인구는 1993년 33만3천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998년 ‘3려 통합’ 이후에는 그 감소폭이 커져 매년 평균 3천500여 명씩 감소해 왔다.

이처럼 인구가 매년 줄고 있는 것은 출산율 저하와 함께 수산업 침체, 교육 문제 등이 큰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30만 명 붕괴로 그동안 다양한 인구 유입책을 추진해 온 여수시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 인구 늘리기 시책을 계속 마련 중”이라면서 “해양경찰 학교 유지 등 각종 투자 유치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조만간 30만 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수확기 ‘진주담치’ 특별관리 주의보!

여수해양청 “환절기 변화심해”

본격적인 수확시기를 앞둔 진주 담치 양식장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여수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여수해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진주 담치는 환절기에 비만도 변동이 심해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특별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여수해양청이 실시한 진주 담치 양식장에 대한 예찰 결과에 따르면 껌질의 크기는 60mm내외로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양식장소 및 채취 시기에 따라 비만도는

40~55%로 그 변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양청에서는 수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찾은 불볕 환절기 를 맞아 양식장에 대한 크기 및 비만상태를 수시 조사해 상품성이 좋은 것부터 우선 채취하는 등 양식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해양청 관계자는 “현 시기는 진주담치의 본격적인 수확 시기로 흉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겉담치’와 ‘낀홍합’ 생산에 의존하지 말고, 마른 홍합 등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여수해경 ‘바다 지킴이’ 듣는해요

4일 고흥군 외나로도 염포 근해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부산선적 2007

삼양호(38t·승선원 2명)를 여수해경 경비정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구조예인작업 2시간만에 삼양호를 고흥군 외나로도 축정항으로 무사히 예인조치 했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 2단계 국동항 종합개발 탄력

市-㈜에프엠, 국민은행 투자협약 체결

여수시는 5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에프엠, 국민은행 등 2개사와 봉산동 국동항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 2조1천99억원을 달하는 대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속박, 삼법, 위락시설과 공동주택, 균린 공원, 주상복합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국동항 종합개발 사업을 완전 민자로 추진하게 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여수시는 행정지원 단을 구성, 각종 행정 지원을 하고 투자

자인 국민은행은 금융자문과 금융주선을, ㈜에프엠은 총괄기획과 설계 업무처 리 등을 해야 된다.

국동항은 지난해 10월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 계획으로 확정돼 현재 해양수산부가 5개년 계획으로 기반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민자 유치를 통한 국동항 개발로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주 5일제 근무 확대에 따른 관광, 휴양단지로 완전히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강행? 철회?

순천의 화상경마장 설치 문제가 금명 판기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화상경마장을 추진 중인 ㈔팔마 대표 이모(45)씨가 건축허가(사용승인) 서류 보완 시한인 전날 오후 미비 사항을 보완해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씨는 시가 지적한 환기시설, 전기배선 등의 문제를 모두 시정하고 건축사의 확인까지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순천화상경마장반대

를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순천화상경마장반대 대책위 김석 간사는 “업주가 지난달 31일까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경마장 사업을 취소하겠다”며 마사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고 마사회가 수긍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마사회 앞에서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팔마 대표 이씨는 지난달 29일 덕암동 역전시장 쇄소전(옛 순천교통부지) 부근 대지 2천283㎡, 연면적 7천904㎡(2~4층) 건물에 대한 복합문화 및 근린생활시설(화상 경마장) 사용승인을 시에 신청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9@

사업주, 서류 보완 市에 제출

반대위, 서울서 기자회견

순천시, 원칙 따라 곧 처리

대책위는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데 이어 오후에는 경기 곤천 한국마사회를 방문, 관계자 면담을 통해 화상경마장 반대 의견을 다시 전달하고 마사회측의 명확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전국의 주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에서 매년 4월5일을 도박 축방의 날로 선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를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순천화상경마장반대 대책위 김석 간사는 “업주가 지난달 31일까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경마장 사업을 취소하겠다”며 마사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고 마사회가 수긍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마사회 앞에서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팔마 대표 이씨는 지난달 29일 덕암동 역전시장 쇄소전(옛 순천교통부지) 부근 대지 2천283㎡, 연면적 7천904㎡(2~4층) 건물에 대한 복합문화 및 근린생활시설(화상 경마장) 사용승인을 시에 신청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9@

光 灏 日 祭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81-3939	목 포 276-9200	나 주 332-5544
동여수 653-8444	무 안 452-8535	나 남부 334-6969
광 양 792-8111	해 남 534-5151	전 성 374-4423
보 보 853-9700	완 도 554-6677	전 담 392-7000
순 천 746-8111	영 광 351-1004	영 양 383-8111
고 흥 835-2436	신 신 243-3758	영 암 473-2340
녹 동 842-2121	진 도 543-0100	전 신 863-8822
구 구 783-8111	강 전 433-8355	전 강 944-0444
곡 성 362-8111	평 광 324-8111	전 청 564-1919
		전 주 653-6155

재개발

광천동재개발지역

투자상담환경

010-4610-5631

모텔

매매·임대

상담환경

016-605-7000

화순 도곡온천 단지 내

최고 상업 중인 무인텔

·신시사설, 복층구조·

·일 매출 250~300만 원

롯데백화점점부근 상업용지

·6층상가 및 주차장

·보 191면 / 월 860만

총장로 4가 5층 상가

·대 53평 건 288평

·보 1면 / 월 160만

·판매가 당 768만

생존동 광천교회 부근

·아래이동 계획지 (8M 계획도면) 참

53평 면적 170평

임동상지역 고급주택

·실태층 건 60평 건 61평

·매 29평 25평

화정동 광천동 A와 대주A 사이

·대 123평 단층상가

·폐 38평 현관

임동시장과 서부경찰서 사이 나대지

·타이어대화점재화점, 준주기, 35M 도로전

·대 164평

도산동 피령새예식장 건너편

·20M 도로전

·27평 면적 220평

회순군 연평리 전원주택적지